

##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 本傳을 중심으로 -

김경미 \*

<차례>

1. 서론
2. 『주자가례』를 통해 본 혼례의 의미
3. 『주자가례』식 혼례의 정착과 저항
4.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과 그 의미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소현성록> 본전을 중심으로 중심인물들의 혼례 양상을 『주자가례』의 정착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주자가례』가 유입된 이후 조선 왕조는 유교적 혼례를 어떻게 정착시키려 했는지, 혼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실제로 양반의 혼례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혼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 주자가례 유입 이후 혼례의 양상을 살펴본 뒤 이를 중심으로 17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현성록>의 성격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혼례를 통해 <소현성록>을 다시 해석해 보고자 한 것은 혼례는 남녀의 만남을 형식화한 것으로 혼례에 대한 의식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혼례에는 한 사회가 요구하는 남녀 관계, 가족 관계 및 이들 관계에 숨어 있는 물질적 관계까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역사 및 문집 자료들을 통해 『주자가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17세기 조선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 <소현성록>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친영이 이루어지는 혼인과 친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혼인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특히 친영이 이루어지는 혼인은 며느리의 경우이고, 친영이 이

\* 이화여대 국문과 전임강사

루어지지 않은 혼인은 딸들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며느리가 시집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딸은 친정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유교적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당시 가문의 중심이 되었던 어머니 즉 <소현성록>의 경우 양부인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여성주의적인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품의 궁극적인 귀결이 유교적 가문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현성록>은 유교적 이상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지속과 번창을 꿈꾸는 유교적 세속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소현성록, 주자가례, 종법, 혼례, 친영, 국문장편소설, 가문

## 1. 서론

<소현성록>이 17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는 연구자들의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문장편소설, 즉 가문소설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유교적 인간형의 소설적 형상화라는 점에서, 여성의 일상적 삶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소현성록>은 이전의 전기소설이나 혹은 동시대의 <사씨남정기>, <구운몽> 등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무엇보다도 <소현성록>의 새로운 국면은 17세기 조선의 상층 사회가 정착시키려 했던 주자학적 가부장제가 일상

1) <소현성록>에 관한 연구는 이본 연구를 비롯해서 인물, 여성주의적 성격 등에 대해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4, 1998, 한국고소설학회,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1, 1999, 한국여성문학학회,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12, 200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장시광,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온지논총』9, 2003, 온지학회,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12, 2005, 한국고전연구학회,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12, 2005, 한국고전연구학회 등을 들 수 있다.

화되는 과정이나 혹은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현성록> 해석의 관건은 이 정착 과정을 주목하는가, 아니면 갈등 자체의 성격과 해결 방식을 주목하는가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소현성록>의 이념적 지향을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가문소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소현성록> 본전을 중심으로 중심인물들의 혼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sup>2)</sup> 특히 『주자가례』가 유입된 이후 조선 왕조는 유교적 혼례를 어떻게 정착시키려 했는지, 혼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실제로 양반의 혼례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혼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 주자가례 유입 이후 혼례의 양상을 살펴본 뒤 이를 <소현성록>과 관련하여 살피고자 한다. 15,16세기에 창작된 전기소설과 비교할 때 17세기에 창작된 소설은 『주자가례』가 일상화된 면모가 종종 드러난다. 예를 들어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는 혼례를 비롯하여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사당에 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교씨 부인의 모해로 집을 쫓겨났던 사씨 부인이 집으로 돌아와서도 사당에 먼저 고하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사당이 배경이 되곤 한다. 『주자가례』가 시행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된 것이 가묘(家廟) 즉 사당을 세워 선대를 제사하는 것이었다. <사씨남정기>에 사당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주자가례』의 시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왜 하필 혼례를 통해 <소현성록>을 보려고 하는가? 주지하듯 혼례는 남녀의 만남을 형식화한 것으로 혼례에 대한 의식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유교 사회의

2)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연구로는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公主婚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가 있다.

인간관계는 그 중심에 가족을 두고 있다. 혼례는 바로 인간관계의 중심인 가족을 이루는 의례로서 결혼의 방법, 결혼의 절차를 정리하고 여기에 그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일종의 제도화된 형식이다. 혼례는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함께 살게 되는 것을 가족 및 사회에 공표하는 의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혼례에는 한 사회가 요구하는 남녀 관계, 가족 관계 및 이들 관계에 숨어 있는 물질적 관계까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묘사를 통해 17세기 가문의 부부 관계 및 가족 관계가 유교적 전범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 혹은 갈등하는가의 정도가 드러난다면 <소현성록>의 이념적 지향을 재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주자가례』를 통해 본 혼례의 의미

### 2.1. 유교와 혼례의 의미

유교 사회에서 혼례는 “만세의 시작”<sup>3)</sup>이자, “예의 근본”<sup>4)</sup>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혼례가 인간 사회의 첫 출발이자 모든 관계의 근본으로 인식되게 된 것은 혼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sup>5)</sup> 『예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례의 의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혼이란 장차 두 성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중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

3) “夫昏禮，萬世之始也.”, 이상옥역저, 『禮記』, 『郊特牲』, 2003, 729쪽.

4) “昏禮者，禮之本也.”, 이상옥역저, 『禮記』, 『昏義』, 2003, 1530쪽.

5) 중국 고대의 혼인 담론에 대해서는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6장. 동아시아의 혼인사상, 도서출판여이연, 2005, 209-247쪽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를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를 중시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혼례에는 납채, 문명, 납길, 납장, 청기하니 모두 주인이 사당에서 연례(筵几)하고 문밖에서부터 절하여 맞는데, 들어와서는 읍하고 사양하며, 당(堂)에 오르게 되며 사당에서 명(命)을 듣는 것이다. 공경하고 삼가 혼례를 무겁고 바르게 여기는 까닭이다.<sup>6)</sup>

위로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 대를 잇기 위한 혼인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손, 그 중에서도 특히 부계 혈통을 이을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불효 중 가장 큰 것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혼인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혼인이 결정되면 혼인하는 날짜를 써서 임금에게 보고하고 재계하여 귀신에 고유하며 술과 음식을 마련해서 향당과 동료와 벗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sup>7)</sup> 그러나 혼인은 축하하는 의례는 아니었다. 아들이 혼인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이 선조의 대를 잇는 것으로 세대교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례에는 음악을 쓰지 않고 남이 축하하지도 않는 것이 예라고 하였다.<sup>8)</sup> 유교에서 혼인의 예가 축하하는 의례가 아니었다는 점은 혼인으로 상징되는 지위 변화로 인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즉 『禮記』 「昏義」를 보면 혼례를 치른 다음날에 시부모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예가 있는데, 이 때 의례를 치르러 대청으로 오를 때는 시

6) “昏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故君子重之, 是以, 昏禮納采問名納吉納徵請期, 皆主人筵几於廟, 而拜迎於門外, 入揖讓而升, 聽命於廟, 所以敬慎重正昏禮也.” 이상옥 역저, 『禮記』, 「昏義」, 1526쪽.

7) 이상옥 역저, 『禮記』, 「曲禮」上, 81쪽.

8) 이상옥 역저, 『禮記』, 「曲禮」上, 86쪽. 여기에 대해 사마온공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음악을 쓰지 않는다는 구절의 주석에 「증자문(曾子問)」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집은 3일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으니, 부모의 대를 잇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더라고 하였다. 지금 세속의 혼례에는 음악을 사용하는데, 예가 아니다.” 주희, 『주자가례』 권3, 「혼례」, 임민혁 옮김, 예문서원, 2003, 183쪽.

부모가 주인의 계단인 동쪽 계단으로 먼저 오르고 후에 며느리가 손님의 계단인 서쪽 계단으로 오르는 반면, 내려올 때는 반대로 시부모가 서쪽으로 며느리가 동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혼례를 통하여 집안의 주도권이 며느리에게 넘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sup>9)</sup>

『예기』는 이처럼 혼인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히 육례(六禮)라고 불리는 혼인의 과정을 정해서 혼인을 형식화하고 있다.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혼례(昏禮)

이 과정을 보면 결혼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며,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유교의 혼례는 “남자가 여자에 우선하는 것(男先於女也)”이며, “친히 신부의 부모로부터 신부를 받는(蓋親受之於父母也)” 것이다.<sup>10)</sup> 이처럼 유교의 혼례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것이었으며<sup>11)</sup>, 배우자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낭만적 사랑이 개입될 여지

9) 『예기』 「혼의」에 시부모가 먼저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고 며느리는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니, 대를 이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방씨는 말했다. “조(阼)는 주인의 계단이다. 이들은 아버지를 이어 장차 밖에서 주인이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어 장차 안에서 주인이 될 것이므로 이것은 관례와 함께 ‘대를 이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 것이다.” 주희, 『주자가례』 권3 「혼례」, 임민혁 옮김, 예문서원, 2003, 187쪽.

10) 이상옥 역저, 『禮記』 「昏義」, 1528쪽.

11) “혼인의 예에 표현된 고대인의 혼인 사상은 첫째, 혼인은 인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작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이 때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다. 무엇보다 혼인은 남성의 계보를 확인하고 생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군신, 봉우, 상하 등 중요한 사회 관계의 주체들이 나왔다. 둘째, 친영례로 표출된 바 혼인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가는 형태, 가취혼(嫁娶婚)의 형태를 취하였다. 셋째, 혼인은 질서 확립의 맥락에서 남녀의 자연적인 상태를 문화적인 형식으로 바꾸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 이 질서는 여자에게 몸의 순결, 태도의 부드러움, 굳은 의지 등을 요구하였고, 남편이 부인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이숙인, 앞 책, 243-4쪽.

가 전혀 없었다. 이는 주자가 제시한 혼례에서도 그래도 나타난다.

## 2.2. 『주자가례』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과 의미

『주자가례』에서 형식화한 유교적 혼례는 기본적으로 『예기』와 『의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자가례』에서 주희는 육례의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면서도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혼례 이 여섯 과정 중에서 문명과 납길을 생략하고, 나머지는 더 엄격하게 나누고 이름을 다시 붙인 뒤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였다. 『주자가례』에 의하면 혼례의 과정은

의혼(議昏)－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부현구고(婦見舅姑)－묘현(廟見)－서현부지부모(婿見婦之父母)

으로 주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에 직접 들이는 의식, 즉 친영(親迎)이다. 각각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여자는 14세에서 20세이며, 반드시 중매쟁이가 왕래하면서 말을 통하게 하고 여자의 집에서 허락하기를 기다린 후에 납채를 하게 되어 있다.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일족(一族)의 적자인 종자(宗子)이다. 즉 납채는 언정(言定)이라고도 하는데, 자제를 사자로 삼아 여자 집에 가게 한다. 납폐를 할 때는 색 비단을 사용하고 빈부에 따라 마땅하게 하되 적어도 한 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많아도 열 필을 넘지 못하게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친영은 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해 오는 것인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는 “가서 너의 내상(內相)을 맞이하여 우리 종묘의 일을 잊고 힘써 공경으로 이끌어라. 그리하면 떳떳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명함으로써,<sup>12)</sup> 혼인이 종묘의 일을 잊는 것임을 강조하고, 신랑이 신부의 수레를

인도하여 오는 대목에서 주희는 “남자가 여자를 거느리고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니, 부부강유의 뜻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sup>13)</sup>는 사마온공의 말을 인용하여 남자 중심의 혼인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머느리는 시부모를 뵙는다. 사흘째 되는 날 주인은 신부를 데리고 사당을 알현하며, 이튿날 신랑은 신부의 부모를 가서 뵙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 집안의 여러 친족을 뵙는다.

누가 혼례를 주관하는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나는가,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회의 혼례 의식이 드러난다. 『주자가례』를 보면 혼례의 주관자는 결혼 당사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종자(宗子), 즉 일족(一族)의 적자이며, 남녀의 만남은 반드시 중매쟁이를 통하여,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혼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친영 부분으로 분량 상으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친영이 초례(醮禮)를 포함한 절차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친영의 절차가 혼례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즉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혼례의 핵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가례』의 핵심이 종법을 바로잡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sup>14)</sup> 따라서 주자도 가례는 종법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관혼상제에 이르러서도 종법으로 행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sup>15)</sup> 따라서 혼례는 결코 남녀의 개인적이

12) “父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勉率以敬, 若則有常.’”, 주희, 『주자가례』권3 「혼례」, 172쪽.

13) “司馬溫公曰, ‘男率女 女從男 夫婦剛柔之義 自此始也.’”, 주희, 『주자가례』권3 「혼례」, 179쪽.

14) 『주자가례』「通禮」에는 “천하의 인심을 다스려 종족을 거두고 풍속을 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을 잊지 않게 하려면 모름지기 계보를 밝히고 세족을 거두며 종자법(宗子法)을 세워야 한다. 종자법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온 곳을 알지 못하여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고, 왕왕 친화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서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정자의 말을 인용하여 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희, 『주자가례』「통례」 50쪽.

고 자유로운 만남이 아니며,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의식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자의 이러한 종법 강조는 송대에 들어와 새로운 혈연주의의 재편성이 일어나고 동족결합이 강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5)</sup> 따라서 조선 사회가 건국 초기부터 아무리 유교적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례를 준수할 것을 강조해도 종법 중심의 가족 관계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간단치 않은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례가 정착했다는 것은 이제 조선사회가 종법 질서를 중시하는 가문 중심의 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가족 관계나 남녀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그러나 중국 사회를 모델로 한 가례가 조선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 일정한 변형이 가해졌을 것이며, 바로 이 변형 과정이 조선식 혼례가 정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주자가례』식 혼례의 정착과 저항

조선은 유교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양반이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생애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몇 가지 의례를 관혼상제(冠婚喪祭)로 정하고 이를 고려 말에 들어온 『주자가례』를 모범으로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그동안 계속 시행되어 오던 불교적 의례 및 토속적 의례를 유교적 의례로 대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러나 오랜 시간을 요했다. 이러한 시도들이 개별 가문 및 개개인이 유지해 온 일상생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례의 경우는 결혼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지내던 관습을

15) “朱子云, …… 然家禮以宗法爲主, 所謂非嫡長子, 不敢祭其父, 皆是意也. 至於冠婚喪祭, 莫不以宗法行其間云.” 『주자가례』권1, 『通禮』, 54쪽.

16)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신서원, 2003, 16쪽.

바꾸어 결혼 직후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서 바로 시집살이를 하도록 되어 있어 여자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했다.

『주자가례』는 고려 말에 전래되어 제례 등 일부는 이미 사대부의 의식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새 왕조 예속의 가장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그런데 가례 중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시행된 것이 혼례와 관례였다. 혼례의 경우 태종 4년(1404) 사헌부의 상소를 통하여 사대부가의 혼인은 모두 『주자가례』를 따르도록 하고 위반하는 자는 법으로 다스릴 것을 건의하여 시행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의 혼속은 여자의 집에서 혼례를 행하고 자식이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사위가 처가에 머무는 풍속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를 맞아다가 시가에서 혼례를 행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친영제는 생소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이어서 왕실의 숭선수범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17세기에 쓰여진 행장이나 행록 등에 시집간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시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경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친영제가 자리 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보았듯이 『주자가례』에서 형식화하고 있는 혼례의 핵심은 친영의 절차이다. 조선시대로 들어와 유교적 의례 형식을 정립하고자 한 국가는 사대부의 관혼상제를 『주자가례』를 모범으로 삼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427년 『주자가례』의 규정은 법으로 받아들여졌다.<sup>17)</sup> 혼례에 대해서는 1404년 대신들이 사대부의 혼례 모델은 『주자가례』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sup>18)</sup>, 1434년 예조는 관직이 있거나 없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최초의 혼례 예식을 만들어 냈다. 이 때 혼례 예식

17)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환』, 이훈상 옮김, 아카넷, 2003, 333쪽.

18) 마르티나 도이힐러, 앞 책, 339쪽.

은 모든 단계에서 주자의 저술을 조목조목 따랐다. 그리고 첨삭 없이 <중친급문무관일품이하혼례>라는 제목으로 오례에 첨부되었고, 곧 국조오례의에 법제화되었다.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게 주자가례가 사대부들에게 배부되었다. 그러나 가시적 효과는 없었다. 15세기에 유교식으로 양반 결혼식을 올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9)</sup>

실록을 보면, 태종 14년에 태종이 『사림광기(事林廣記)』에 조선의 혼인에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일을 희롱하고 비웃는 대목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의관문물(衣冠文物)이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준수하는데, 유독 혼례만은 오히려 구습(舊習)을 따르니 심히 불편하다고 한 기사를 비롯해서 친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조까지 지속된다. 중종 7년 11월 22일의 기사에 보면 시강관 윤은필이 “혼인에는 친영이 지극히 중대한 것이나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니, 만일 혼인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중종이 『오례의(五禮儀)』에도 종친(宗親)과 문·무 관원 1품(品) 이하 모든 사람의 혼인에 친영하는 의식이 실렸는데, 습속에 버릇이 되어 버려두고 거행하지 않으니 결여된 법”이라고 하면서 “경대부(卿大夫)의 집에서 혼인할 때에는 친영의 의식을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따라 하면 사서(士庶)의 집들 또한 본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의논하여 올리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16세기에 이르도록 친영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 오면 실록에 친영에 대한 기사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한편, 17세기에 기록된 남성 행장을 보면 관혼상제를 주자가례대로 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시속이 예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겨 자녀들을 혼인시킬 때는 반드시 예에 따라 친

19) 마르티나 도이힐러, 앞 책, 340쪽.

영의 예를 행하였다.”<sup>20)</sup>거나 “자녀들을 혼인시킬 때는 반드시 친영의 예를 행하였으며 납채, 납징, 청기 등을 모두 예를 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행하였다.”<sup>21)</sup>는 구절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친영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여성 대상 기록들을 보면 결혼 뒤에도 친영의 예를 지키지 않았던 경우들이 왕왕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김수항의 딸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는데 그때까지 시부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sup>22)</sup> 그런가 하면 시집간 뒤 친정에 일이 생기면 친정으로 돌아와서 친정부모를 모신 경우도 보인다. 조지겸의 부인 심씨는 15세에 결혼을 했으나 친정아버지가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청도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 따라가서 3년 간 친정아버지를 보살피고 주로 친정에서 생활하였다.<sup>23)</sup> 이외 오달제, 박세당 등은 장가들어 데릴사위로 왕래하거나 처가에 의지하여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친영은 형식적으로 강조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주자가례에 기록된 바대로 행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가옥 구조나 조선적 현실은 중국의 실상에 맞게 형식화된 주자가례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조선식으로 정착되거나 아니면 정착되는 과정에서 속례(俗禮)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혼재 양상은 17세기에 창작된 <소현성록>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 오억령, “時俗不知禮, 公病之, 子女婚嫁, 據禮親迎, 仍成家法.” <경성관관한효윤묘지명>, 『만취문집』 권5.

21) 이후경, “其娶婦嫁女, 必行親迎之禮. 納采, 納徵, 請期, 皆遺知禮者爲之.” <유명조선국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겸세자보양관한강선생인행록>, 『외재선생문집』 권3.

22) 정형지의, 『17세기여성생활사자료집』1, 보고서, 2006, 326쪽.

23) 김경미외, 『17세기여성생활사자료집』4, 보고서, 2006, 204-5쪽.

#### 4.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과 그 의미

여기서는 이화여대 소장본 <소현성록> 본전을 대상으로 혼례의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여기에는 분명 몇 가지 전제가 따른다. <소현성록>이 아무리 17세기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해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허구화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일정한 굴절이 이루어졌다는 점, 본전과 별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sup>24)</sup> 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세울 만한 논리적 근거나 안목을 갖고 있지는 못 하다. 다만 <소현성록> 본전에 나타난 소현성의 세대의 이야기가 17세기 상층 사대부의 전범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소현성록> 본전은 기본적으로 행장 서술의 이념적 지향이나 서술 방식에 상당 부분 견인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장과와의 구체적 비교를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다른 글로 미룬다.

우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을 보면 주자가례식 친영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소현성 가문을 중심으로 볼 때 아들과 딸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도 보았듯이 주자가례식 혼례의 의례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친영에 있다. 친영은 곧 여자를 남자의 집 즉 시집으로 데려가서 시집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소현성록>에는 아들과 딸의 혼례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세 번에 걸친 소현성이

24) 본전과 별전의 작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병설, 정길수, 정선희 등은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임치균, 지연숙 등은 같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병설, 「장편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12, 1997,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논문, 2005,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학연구』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참조. 정선희, 앞 논문 65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혼례 장면 묘사를 보자. 예문은 현대어로 바꾸었다.

백 냥 수레로 신부를 맞아 집에 돌아와서(親迎)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 신랑의 깨끗하고 후덕한 용모와 버들 같은 풍채가 표연히 이태백보다 나왔다. …… 혼례를 마친 후 신방에 나아가 합환주를 마실 때 직사가 잠깐 눈을 들어 신부를 보았다. …… 다음날 폐백을 받들고 사당에 올랐다.(廟見) …… 그리고 사당에서 내려와 새 단장을 하고 부인에게 예를 올리니(婦見舅姑) 부인이 …… 그 자리의 손님들이 입이 마르도록 복 있다고 칭찬했는데 ……(권 1, 46-50면)

생도 또한 눈물을 머금고 위엄 있는 의식을 갖추어 석씨 집에 이르러 기러기를 전하였다.(奠雁) 신부가 교자에 오르기를 기다리니 소저가 여러 보물로 몸을 잘 단장하고 백 냥 수레에 올랐다. 상서가 순금으로 된 자물쇠를 가지고 덩을 잠그고 말에 올랐다. 칠왕 팔왕 두 제후가 요객이 되고 만조백관이 십리에 벌여 무수한 추종이 좌우에 겨 어깨를 겹쳐 있어 티끌이 해를 가리니 그 풍성함을 이루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親迎) 자운산에 이르니 중당에 자리를 잘 차려 놓았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예를 마치고 같은 자리에 나아가 지하상을 나누는데 …… 다음날에 시어머니를 뵈고(婦見舅姑) 사당에 절하는데 예의를 갖추어 행하였다.(廟見) 축하하러 온 손님이 구름 같으니 양부인이 비로소 화씨를 불러 경계하여 말하였다.(권2, 46-48면)

부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주저하였으며, 상서도 역시 즐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날찌를 택하여 예를 치르게 되었는데, 중춘 초열홀이었다. 겨우 열홀이 남았으나 두 집안이 모두 위의를 기다렸었다. 소씨 가문에서 백 냥 수레로 여씨를 맞아 자운산 장현동에 들어와 대청 가운데에서 맞절을 하였다. ……(권2, 79-80)

장차 날이 기울어가니 여씨 집에 가 신부를 맞아왔다.(親迎) 그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양부인과 상서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아  
바르지 못함을 알고 놀랐기 때문이다. 날이 저무니 신부의 숙소를 청운각으  
로 정하였다. 생이 생각하되 ‘비록 그녀가 어질지는 않으나 내가 편벽하게  
대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고는 마음을 정하고 신방에 가 지냈다.(권2, 87-88)

위 예문들을 보면 각각의 혼례 장면이 모두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소  
현성록>에서는 둘째 부인인 석씨가 외모나 덕성이나 재주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첫째 부인 화씨는 덕성이 부족하고 어느 모로  
보나 소현성보다 떨어지는 인물로 묘사되며, 셋째 부인 여씨는 어질지 않  
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인물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혼례 묘사에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조선사회가 계속 문제시했던 친영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또 『주자가례』에서 규범화한 대  
로 사당에 절하고,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예를 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씨의 경우 13살에 소현성에게 시집을 오는데, 이에 대해 소현성은 “어  
리고 약한 여자”를 바빠 혼인시키려 한 장인을 이상하게 여기며 “장성하  
기를 기다려야지 어린 여자와 더불어 즐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14세가 된 뒤에야 비로소 가까이 한다. 이 역  
시 주자가례에서 여자가 혼인하는 나이를 14세에서 20세로 정한 것을 의  
식한 설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현성록> 본전은 이 세 부인이 들어온 뒤 계속 소현성의 집에 머물  
며 부인의 도를 지키며 시집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물론 석부인의 경우 몇 달간 친정에 머물다 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세 부  
인들의 생활은 소현성의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어머니 양부  
인은 엄격하고 공평하며, 남편인 소현성 역시 공평한데다 여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소현성은 세 부인을 맞은 뒤에 한 달

중 10일은 서당에 있고, 8일은 화씨에게 있고, 6일은 석씨, 화씨에게 머무는 것을 정해서 실천할 정도로 공평한 인물이다. 그러면 세 부인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그 한 가지 예를 보자.

석씨를 부인으로 맞을 때 양부인은 소현성의 길복[혼례복]을 화씨에게 짓게 한다. 화씨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소현성의 누나가 타이르는 말을 듣고 길복을 짓는다. 그리고 혼례 날 눈물을 머금고 소현성에게 길복을 입힌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인사 후에 양부인이 화씨에게 말하였다. “경의 길일이 다다랐으니 그대는 예복을 다스려라.” 드디어 좌우 시중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비단을 내어 와 화씨에게 옷을 마르라고 하였다. 화씨가 분하고 억울했으나 상서가 자리에 있고 양부인의 기색이 매우 엄정하니 감히 발악하지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러 붉은 치마에 떨어졌다. …… 양부인이 화씨를 불러 상서의 관복을 입히라고 하시니 그 명령을 듣고 나아가 관대를 받들어 섬겼다. 양부인이 남모르게 눈길을 보내 그 행동거지를 살피니 화씨가 얼굴 빛이 흠빛이 되어 그 웃고름과 띠를 매는데 손이 떨려 쉽게 하지 못하였다. (권2, 44-46면)

위 예문은 양부인이 화씨의 투기하는 마음을 애초에 다잡기 위해 화씨에게 옷을 짓게 하고 입히게 하는 대목으로, 화씨가 순순히 따르지 않고 여전히 마음으로 굴하지 않는 면을 보여준다. 이 일이 있은 뒤 다시 여씨를 부인으로 맞을 때 양부인은 화씨, 석씨 두 부인으로 하여금 같이 길복을 짓게 한다. 그러나 화씨는 화가 나서 거부하고 석씨 혼자 하루 만에 지어서 소현성이 다음날 입게 하는데 어떤 마음의 갈등도 보이지 않아 다시 주위 사람들을 감탄케 한다. 이는 여러 부인을 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부인의 투기에 대한

경계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도 17세기적인 현상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암 송시열이 시집간 딸에게 준 <계녀서>에서 “일백 첩을 두어도 볼 만하고, 첩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노기를 두지 말고 더욱 공경”하라고 한 데서 투기에 대한 경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를 경계하면서도 <소현성록>의 작가는 가장인 소현성의 공평함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방적인 남성 중심성은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딸들의 혼례는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위 소현성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소현성의 두 누이의 혼례에 대한 서술로 주인공인 소현성의 혼례 장면에 비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혼례 뒤에도 주로 친정에 머물며 친정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참정 한경현이 소소저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구혼하니 부인이 허락하고 택일하여 육례로 한생을 맞았다. …… 상서복야 이기휘 또한 교영에게 구혼하니 교영과 혼인하게 되었다.(권1, 18면)

1년 중 8개월을 친정으로 돌아오니 한생도 따라와 부인과 함께 지내었다. 이러므로 늘 자운산에 있으니 양부인의 사랑함과 사랑의 기쁨이 비길 데가 없었다.(권2, 19면)

소부인 윤부인 등이 출가하였지만 늘 자운산에서 함께 즐기니 당시의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권4, 99면)

<소현성록>이 양부인과 소현성을 중심으로 한 소씨 가문의 일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딸들의 혼례가 이처럼 간단하게 다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이나 며느리의 결혼 생활에

그토록 민감한 작자가 결혼한 딸들이 친정에서 사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출가한 딸들이 함께 즐기니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앞 장에서 보았듯이 17세기 당시 출가한 딸들이 여전히 친정 일에 관여하였으며, 출가한 뒤에도 친정 근처에 살고 싶어서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살기도 했던<sup>25)</sup> 관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주자가례』에 충실하게 맞이한 부인들은 시집에 살면서 자신 때문이든 모의에 의해서든 한번씩 문제를 겪는데, 친정에 사는 부인들은 문제가 표면화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주자가례』가 철저하게 종법에 입각한, 남성 중심적 제도인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딸보다는 며느리 길들이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현성록> 본전에는 남녀의 애정이 부인되고 있다. 양부인의 둘째딸 교영이 남편이 죽은 뒤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 발각되자 양부인은 독약을 먹고 죽게 할 정도로 가혹한 면모를 보인다. <금오신화>를 비롯해서 여타 전기소설이 보여주는 남녀의 만남이 완전히 소거된 텍스트가 바로 <소현성록> 본전이라 할 수 있다. <소현성록> 본전에도 애정 결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현성이 윤씨를 구출해 주는 모티브는 뒤에 애정 결연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윤씨를 소현성의 애인으로 만드는 대신 누이로 만들어 버린다.

결국 <소현성록>은 혼례의 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주자가례』를 중심

---

25) 송시열이 쓴 <유명우의 아내 김씨 묘표>에는 집을 짓게 되었을 때 친정부모 집 가까이 지어 끝까지 효도하려 했던 기록이 나온다. 17세기여성생활사자료집1, 224쪽. 이외 김창협이 사촌 누이 김씨(1663-1683)는 유명건에게 시집갔는데, 갓 시집갔을 때 부모를 그리는 마음에 차마 멀리 가지 못 하고 친정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김창협, <윤씨에게 시집간 사촌누이의 묘지명>, 17세기여성생활사자료집3, 297쪽.

으로 한 가부장제가 정착되면서 기존의 관습과 갈등하는 면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표면화 시켜서 보여주는 갈등은 세 부인들의 갈등이며, 그 해결은 궁극적으로 부인들의 순종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부인권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양부인을 통해서 보듯 모권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부인권이든 모권이든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 가부장권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가문 내에서 남성 가부장의 위치가 공고해지고, 또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위치는 확고해지지만 딸이나 부인의 위치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17세기에 들어서 여성들의 물질적 기반이 약화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음 예는 17세기 여성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딸들은 출가한 이후에는 곧바로 다른 가문의 사람이 되어버리니 그 지아비를 따르는 의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예법을 만들면서 (출가한 딸은) 한 등급 낮추었으며 情과 義 모두를 가볍게 하였다.

세간의 사대부 집안 제사에는 사위에게 제사를 돌리거나 지내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내가 일찍이 다른 사람 집안의 사위와 외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니 서로 미루다가 빼먹는 경우가 많았다. 또 비록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도 재물이 정결치 못하고 정성과 경외의 마음이 없어서 차라리 지내지 않는 것만 못했다.

우리 집에서는 일찍이 이 일로 아버님께 아뢰어 정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논의하여 정하기를 여러 차례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제사를 결단코 사위나 외손의 집에 윤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대대로 준행하도록 하라.

예비와 자식 사이의 情理라는 면에서 본다면 아들과 딸 사이에 차별이 없겠지마는 딸들은 부모 생전에 봉양하지도 않고 사후에 제사도 지내지 않는데 어찌 유독 유산만은 남자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

므로) 딸들은 남자형제들이 물려받는 재산의 1/3만 나누어 갖도록 해도 情이나 義라는 면에서 따져보아도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다.<sup>26)</sup>

위 예문은 현종 10년(1669) 김명열에 의하여 작성된 부안김씨가의 전후 문서(傳後文書)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재산분배에 있어서 남아우대, 장자우대를 실천하라는 것으로 사위나 외손의 제사 윤행을 금지하고 있고,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딸은 아들의 1/3만 주라고 하고 있다. 김현영은 이것으로 제사 윤행과 재산분배에서 여성이 배제된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이르다고 하면서도 가훈이나 분재기에 나타난 가족과 친족의식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해남윤씨의 경우 18세기 후반에, 부안김씨, 영월신씨의 경우 17세기에 부계 중심의 가계 전승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sup>27)</sup>

<소현성록>은 17세기 조선 사회의 이러한 변화 과정을 소씨 가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앞서 주자가례식 혼례의 정착 과정과 관련하여 <소현성록> 본전을 살펴본 결과 <소현성록>은 주자가례식 혼례를 실행한 소현성의 부부 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와 대비되는 소부인, 윤부인의 부부 관계를 보여준다. 서사의 핵심이 소현성과 세 부인에게 있으며, 결국은 세 부인이 소현성 가문의 며느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갈등은 주자가례식 혼례의 모델이나 그 기저에 있는 이념이 실제의 삶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서사의 종결이 의미하는 바 <소현성록> 본전의 성격은 <소현성록>을 비롯한 가문소설이 갖는 유교적 계몽주의의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소현성록>은 유교적 가부장제

26)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김현영, 신서원, 2003, 39-40쪽에서 재인용.

27) 김현영, 위 책, 52쪽.

의 억압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현성록>을 여성주의적인 작품으로 보는 것은<sup>28)</sup> <소현성록>뿐만이 아니라 가문소설 전반의 성격을 잘못 해석하는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여성의 일상이 드러나는 것과 여성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모장의 성격을 띠는 양부인에 대해서도 17세기 부인권의 약화와 함께 강화되는 모권과 연관시켜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5. 결론

이 글은 <소현성록> 본전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을 『주자가례』의 정착과 관련하여 살피고, 이를 통해 <소현성록> 본전의 이념적 지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17세기 역사 및 문집 자료들을 통해 『주자가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17세기 조선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 <소현성록>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친영이 이루어지는 혼인과 친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혼인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특히 친영이 이루어지는 혼인은 며느리의 경우이고, 친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혼인은 딸들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며느리가 시집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딸은 친정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유교적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당시 가문의 중심이 되었던 어머니 즉 <소현성록>의 경우 양부인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양부인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이를 여성주의적인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품의 궁극적인 귀결이 유교적 가문을 이루는

28) 정창권, 앞 논문에서 여성주의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보았다.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현성록>은 유교적 이상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지속과 번창을 꿈꾸는 유교적 세속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실주의라는 말 대신 세속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국문장편소설에 보이는 가문 중심성이 갖는 세속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17세기 이후 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문장편소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 참고문헌

<소현성록>, 이대 소장본 15권 15책

『한국문집총간』

조선왕조실록 CD롬

정형지 외, 『17세기여성생활사자료집』1, 보고서, 2006, 1-480쪽

김경미 외, 『17세기여성생활사자료집』4, 보고서, 2006, 1-449쪽

이상옥 역저, 『禮記』, 2003, 명문당, 1-1810쪽

주희, 『주자가례』, 임민혁 옮김, 예문서원, 2003, 1-494쪽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신서원, 2003, 1-320쪽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1-250쪽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公主婚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5-35쪽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127-154쪽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69-100쪽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101-125쪽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도서출판여이연, 2005, 1-516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43-242쪽
- 장시광,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연구」, 『온지논총』9, 온지학회, 2003, 107-148쪽
-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265쪽
- 정병설, 「장편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12, 1997, 221-248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쪽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3-328쪽
-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학연구』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29-63쪽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환』, 이훈상 옮김, 아카넷, 2003, 1-506쪽

K C I

ABSTRACT

The Acceptance of *Jujagarai* and Marriages in *So Hyun Sung Rok*

Kim, Gyung-Mi

This study tries to analyze marriages of main characters in *So Hyun Sung Rok*, a work of the 17th century Chosun dynasty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the acceptance of *Jujagarai*. The reason why I try to reinterpretate *So Hyun Sung Rok*, through focussing marriages is that the perception of marriages reflect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and other familial relationships were perceived in those days.

The historial and literary documents in the 17th century shows that the rule of Chinyoung in *Jujagarai* was not settled in those days and this is reflected in *So Hyun Sung Rok* which is told to represent the 17th century Chosun dynasty. In *So Hyun Sung Rok*, marriage following the rule of Chinyoung and marriage not following it are found at the same time. Marriage with the rule of Chinyoung was applies to daughters-in-law, and marriage without Chinyoung was applied to daughters. While it was natural that daughters-in-law should live in their husbands' house, daughters were allowed to live in their fathers' house. This phenomenon shows *So Hyun Sung Rok* followed not the principle of Confucianism but the desires of a mother, matron Yang who is the center of their family in this work. But we can not say that this work is a feminist work because the conclusive suggestion of this work is building a Confucian family. In this sense *So Hyun Sung Rok* is rather a work which tells Confucian secularism with the dream of building prosper family than a work of Confucian idealism.

**Key Words** *So Hyun Sung Rok*, *Jujagarai*, marriage, Chinyoung

논문투고일 : 2006. 5. 15

심사완료일 : 2006. 5. 29

게재확정일 : 2006. 6. 12